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3차 공동 여론조사

정동영 지지율 18.3%... 첫 두자릿수 확보

광주일보 등 전국 9개의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17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이자 국회에 원내 의석을 가진 5개 정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대선 직전까지 수차례 더 실시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본다.

이인제·권영길 후보도 소폭 상승 이명박 2차때보다 4.9% P 하락

■ 대선 후보 지지도

▷전국 지지도=이명박 후보가 50% 이상의 고공 지지율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1강(強) 1중(中) 3약(弱)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55.0%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꼽았다. 이 후보 지지율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 8월 21일 제2차 조사(보보 8월 23일자 1·4면) 때의 59.9% 보다 4.9% 포인트 하락했지만 2위 후보와 격차가 36.7%포인트에 달해 여전히 독주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 15일 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정동영 후보는 18.3%를 얻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2위에 랭크됐다. 정 후보 지지율은 신당 경선 이전인 지난 8월 2차 조사때의 3.6%와 비교하면 14.7%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신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손학규, 이해찬 등 당내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흡수한데다 컨벤션 효과(Convention Effect·전당대회나 경선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범여권을 대표하는 신당 후보로 공식 확정됐음에도 지지율이 20%에 미치지 못한 것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이어 지난 14일 창조한국당(가칭) 발기인

대회를 가진 문국현 후보는 5.2%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지난 8월 2차 조사 때 얻은 0.2%에 비해서는 5.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도 지난 8월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한 4.3%와 3.8%를 각각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지도=4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광주·전남지역 지지도 조사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40.4%를 얻어 15.5%에 그친 이명박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 후보는 자신의 출신지역인 전북에서도 54.5%를 기록해 선두로 올라섰다. 신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범여권 지지기반인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상당폭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8월 2차 조사때 호남에서 36.0%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나 이번엔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이 후보는 올들어 광주·전남에서도 줄곧 선두를 지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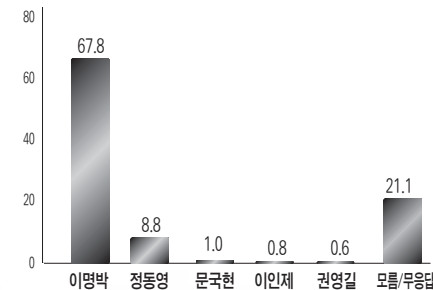
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명박 후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14.4%의 지지를 얻어 이명박 후보를 오차범위내에서 바짝 추격했고, 특히 전남에서는 18.4%를 얻어 13.1%에 그친 이명박 후보를 앞지르며 2위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지역 문국현 후보 지지도는 7.3%, 권영길 후보는 3.5%를 각각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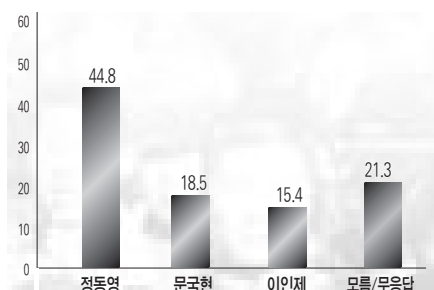
■ 지지후보 변경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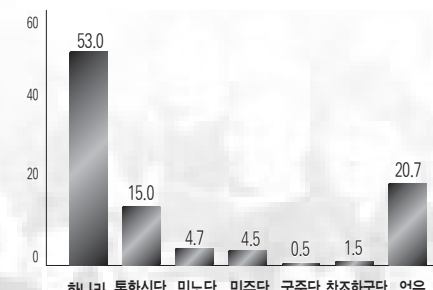
■ 당선 예상 후보



■ 범여권 대선후보 지지도



■ 정당 지지도



“지지 후보 안 바꿀 것” 62.5% 광주 44%·전남 41% “바꿀 수도”

■ 지지 후보 변경 의향

대선 후보 지지를 밝힌 2천940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묻은 결과 62.5%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 '지지하는 후보를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3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지 고수' 응답은 남성(67.1%)과 연령이 높을수록(50대 이상 71.9%),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66.7%), 자영업자(68.9%), 한나라당 지지층(69.9%), 보수적 정치성향자(70.4%) 등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변경 가능' 응답은 학생층(54.4%)과 무당층(55.1%),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46.1%)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명박 후보의 주요 지지지역인 경북(67.6%)과 서울·경기(각 67.1%)에서는 '지지 고수' 의견이 많았으며,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경합지역인 광주(44.0%)와 전남(41.4%), 그리고 이인제 후보의 출신지역인 충남(40.7%)에서는 '변경 가능'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이명박 후보의 주요 지지지역인 경북(67.6%)과 서울·경기(각 67.1%)에서는 '지지 고수' 의견이 많았으며,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경합지역인 광주(44.0%)와 전남(41.4%), 그리고 이인제 후보의 출신지역인 충남(40.7%)에서는 '변경 가능'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이명박 후보의 주요 지지지역인 경북(67.6%)과 서울·경기(각 67.1%)에서는 '지지 고수' 의견이 많았으며,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경합지역인 광주(44.0%)와 전남(41.4%), 그리고 이인제 후보의 출신지역인 충남(40.7%)에서는 '변경 가능'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67.8% “이명박 후보 당선될 것” 남성·고학력·고소득층서 높아

■ 당선 예상 후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가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7.8%가 이명박 후보를 꼽아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이 후보 지지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이어 정동영 후보는 8.8%, 문국현 후보 1.0%, 이인제 후보 0.8%, 권영길 후보 0.6% 순이었다.

순으로 이들은 지지를 대비 당선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라는 응답은 남성(70.9%)과 학력이 높을수록(대제 이상 78.9%), 가구소득이 높을수록(401만원 이상 79.0%)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도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점치는 유권자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정동영 후보는 19.1%, 이인제 후보는 3.5%, 문국현 후보는 1.0% 순이었다.

“범여 후보 정동영 지지” 44.8% 문국현 18.5%·이인제 15.4%

■ 범여 대선 후보 지지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통합민주당 정동영,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누구를 지지할 지 의향을 묻은 결과 정 후보가 44.8%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2배 이상 앞섰다.

이어 문국현 후보 18.5%, 이인제 후보 15.4% 순이었으며, 모를·무응답층은 21.3%였다.

각주지역별로 보면 정 후보는 전북(67.1%)과 광주(58.2%), 전남(53.9%)에서 단일화를 할 경우 누구를 지지할 지 의향을 묻은 결과 정 후보가 44.8%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2배 이상 앞섰다.

한나라 지지율 53%로 압도적 신당, 광주·전남선 29.4% 1위

■ 정당지지도

한나라당이 53.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지난 8월 조사 때보다는 7%포인트가량 하락했다. 통합민주당은 경선 효과에 힘입어 2개월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15.0%를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4.7%, 민주노동당 4.5%, 창조한국당(가칭) 1.5%, 국민중심당 0.5% 순이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북(69.9%)과 경남(68.8%), 대구(65.8%)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광주·전남에서는 통합민주당이 29.4%로 수위를 달렸고, 민주당은 22.1%로 2위를 차지했다.

통합민주당은 전북에서 49.5%, 광주에서 37.8%를 얻어 1위를 지켰고, 민주당은 전남에서 28.8%를 얻어 20.9%에 그친 신당을 따돌리고 선두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에서 한나라당은 11.7%를 얻어 지난 6월 조사때의 12.8%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5.6%, 창조한국당 2.0%, 국민중심당 0.8% 순이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산행안내 (Mountain Hiking Guide) with various notices and advertisements.

부동산대출중개사 가 뜬다! (Real Estate Loan Brokerage) advertisement for a company with 12 years of experience.